



2014년 8월 22일 제 40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 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동향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 최근 동향

---

- [에너지] 미 에너지부 풍력시장 보고서(8.18) : 2013년 사상 최대치의 발전용량(61GW)을 기록했으며, 2014년 말에는 수력을 제치고 재생에너지 중 1위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총 발전용량 : 87GW (2013년 말 기준)
  
- [농업] 러시아의 미국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대러 경제제재 대응, 2014.8.6)와 관련, 미 농무부는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비중(1% 미만)을 감안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가금육(6%) 및 견과류(2%) 등 일부 품목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
  
- [ICT] 중국의 인터넷 검열 및 미 정부의 대응 : 미국 정부 및 의회는 인터넷 사용의 자유를 글로벌 인권 문제로 간주하고 중국의 검열조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며 글로벌 인터넷 사용 자유화 노력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 에너지부, 미 풍력시장 보고서 발표(2014.8.18)

미국 에너지부는 2013년 미국 풍력발전 산업을 정리한 풍력시장 보고서를 2014.8.18 발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미국 풍력발전 개요

- 2013년 미국의 풍력발전 용량은 사상 최대(61GW)를 기록했으며, 2014년 및 2015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 참고로 미 에너지부가 추산한 2014년 5월 기준 미국 하계 발전용량은 1,066GW,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총합은 163GW이며, 풍력발전은 61GW로 수력(79GW)에 이어 재생에너지원 중 두 번째로 큰 발전용량을 보유
  - 또한, 에너지부는 2014년 말까지 신규 풍력발전 설비가 22GW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2014.5월 에너지 정보청 월간 전력보고서),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14년 말에는 풍력발전이 설비용량 기준 재생에너지원 중 첫 번째가 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신규 설비용량은 최근 추세에 비하여 기록적으로 저조했으나, 신규 설치대기 중인 용량을 감안하면 2014~15년 전망은 밝은 상황임.
  - 다만 2016년 이후 상황의 호조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
- 2013년 기준 미국의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중국(91GW)에 이어 세계 2위
  - \* 설비용량(GW, 2013): 중국(91), 미국(61), 독일(34), 스페인(23), 인도(21), 영국(11), 이태리(8.5), 프랑스(8.1), 캐나다(7.8), 덴마크(4.7)

## 2 발전시설 설치 동향

- 2013년 신규 설치량은 1,087MW(약 1GW)로서 전년대비 2% 성장했으며, 전체 발전용량 증가분의 7%를 차지하였음.
  - 다만, 2013년 미국 풍력발전 설비용량 증가분은 전년도 증가분의 8%에 불과한 수준으로 다소 저조

- \* 2013년 신규 설비용량은 2005년 이후 최소 규모로서, 전년(2012년) 13GW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한 수준
- o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의 신규 설비용량이 269MW로 가장 많았으며, 총 누적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텍사스주가 1위를 유지

### 3 산업 동향

- o 2013년 미국 시장은 GE가 급격히 점유율을 확장하면서 90%(984MW)를 점유하였음.
  - \* 2위는 지멘스로서 8%, 3위 베스타스는 0.4%이며, 타 기업들은 없거나 극히 미미
- o 미국 국내 터빈 생산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2013년 미국내 생산량은 발전기 품목별로 8~10GW 규모 수준을 기록함. 다만 2015년 이후의 시장전망이 불확실한 관계로 제조사들의 추가 투자는 불명확한 상황임.
- o 독립발전사업자(IPP, 민자발전사업자)가 전체 신규 설비증가분의 95%를 소유함.

### 3 기술 동향

- o 풍력발전기 대형화 추세 지속: 터빈당 평균 발전용량은 1.87MW(90년대 말에 비해 1.6배 증가), 타워 평균 높이는 80미터, 블레이드 평균 지름은 97미터를 기록(2013)
- o 또한 저풍속 지대 설치용 터빈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신규 설치되는 터빈의 대부분을 차지(풍속의 강약 여부에 관계없이 저풍속 지대용 터빈을 설치하는 경향이 우세)

### 4 가격 동향

- o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의 판매 가격은 \$25/MWh로 2009년 \$70/MWh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낮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o 정부의 각종 지원과 최근 저풍속 지대 풍력발전 설치 등이 늘어나면서 낮은 전력판매 가격에도 불구하고 풍력 발전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2013년에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5 정책 동향

- 현재 2013년 말 이전에 착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이 2014~15년 풍력발전 설비용량 급증에 큰 추동력으로 작용 중임.
  - 그러나 현재 생산세액공제는 종료된 상황이며 재개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2015년 이후 시장 상황은 불확실
  - 다만 EPA가 탄소저감을 위해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규제들이 풍력발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
- 2014년 6월 현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29개 주와 워싱턴 D.C.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전체 풍력발전 설비의 93%가 RPS 적용 주에 설치되어 있음.
  - 그러나 RPS로 요구되는 평균 설비용량 증가율(연간 3~4GW)이 실제 풍력발전 증가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RPS제도가 큰 정책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013년에만 텍사스 '재생에너지 구역' 송배전망 등 풍력 발전에 중요한 4개 송전 프로젝트를 포함한 3,500마일의 송배전망이 건설되었으며, 이는 최근 몇 년 이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임.
  - 또한 현재 기획 중인 15개의 송전 프로젝트가 완료된다면 60GW의 신규 풍력발전 설비를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끝/

※ 내용 관련 문의: 최성준 상무관보 (202-939-5670, s505agnie@gmail.com)

# 러시아의 미국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영향 분석

2014.8.6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미국, 캐나다, EU, 호주, 노르웨이에 대해, 농산물 수입을 향후 1년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함에 따라 미 농무부(USDA)에서 동 조치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 수출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하였음.

USDA에 따르면, 대러시아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가금육(2013년 3억 1,000만불), 견과류(2013년 1억 7,200만불) 등 일부 품목의 수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1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

- 2014.8.6일 러시아는 미국, EU-28개국, 캐나다, 호주 및 노르웨이로부터 1년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 과채류, 견과류 및 가공식품 등을 포함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함.
- 2013년 미국의 대러시아 농산물 수출은 13억불이었으며, 이 중 55% 정도가 금번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됨.

## 2 러시아의 농수산물 수입시장 규모

- 러시아는 EU,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5번째로 큰 농산물 수입국 (2013년 총 404억불 규모 수입)
- 러시아는 미국산 농산물 수출시장에서 20번째 큰 시장으로 2013년 총 13억불 규모를 수입(미국 농산물 수출액의 1% 미만 차지)
- 지리적 거리와 기타 요인들에 의해 러시아 시장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임(2013년에는 4% 정도). EU-28개국이 4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이 9%를 차지함.

## 3 수입 금지된 주요 품목

- **가금육** : 2013년 미국의 대러시아 가금육 수출은 3억 1,000만불로 미국산 가금육 수출액의 6%를 차지하는 4번째로 큰 시장이었음. 2008년에는 18%를 차지하는 8억불 규모였으나, 러시아측의 수입제한 조치\*와 러시아 국내 가금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수출액이 감소함.

2013년 러시아의 가금육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브라질이 차지함.

\* 닭고기 세척수에 염소를 사용하는 문제와 냉장·냉동 제품의 수분 함량 규격 등의 문제

○ 돼지고기 : 2013년 미국의 대러시아 돼지고기 수출은 러시아측이 2013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미국산 돼지고기, 쇠고기, 칠면조에 대한 수입을 제한\*함으로 인해 1,800만불에 그침. 러시아는 2013년 2억 6,700만불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수입국이었음. EU-28개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수출국이고(현재는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수개월간 수입금지 조치중) 그 다음이 브라질과 캐나다임. 미국은 러시아의 돼지고기 수입시장에서 2012년에는 12%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1% 미만을 차지함.

\* 러시아에서는 금지된 사료첨가제인 락토파민 검출 등으로 인함.

○ 쇠고기 : 2013년 미국의 대러시아 쇠고기 수출은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2013년 초 러시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되어 1백만불에 불과함. 2012년 미국의 대러시아 수입은 2억 9,900만불에 달했음. 2013년 대러시아 쇠고기 수출에 브라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이 파라과이임. 미국은 러시아의 쇠고기 수입시장에서 2012년에는 8%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1% 미만을 차지함.

○ 유제품 : 러시아측의 수출업체 등록과 증명서 요건이 까다로워 2010년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유제품 수출은 미미함. 벨라루스가 대러시아 공급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치즈는 EU-28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함.

○ 견과류 : 러시아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미국산 견과류 수출시장이었음. 2013년 1억 7,200만불 수출로 2010년의 3배 수준까지 성장하였으며, 미국산 총 수출의 2%를 차지하였음. 러시아는 미국산 견과류 수입의 12번째 큰 수입국이었으며, 미국은 러시아로 견과류를 수출하는 가장 큰 수출국이고 다음은 이란임. 2013년 러시아의 견과류 수입시장에서 미국은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러시아의 아몬드 수입의 95% 이상은 미국이 공급함. 2013년 미국산 아몬드의 대러시아 수출은 1억 3,900만불이었고 피스타치오는 3,100만불에 달함.

○ 과일류(신선·가공) : 러시아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과일류 수입국

중의 하나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미미함. 2013년 러시아는 미국산 신선 과일 시장에서 19번째를 차지함(3,400만불로 미국산 과일 수출의 1% 미만을 차지함). 2013년 EU-28개국이 가장 큰 대러시아 과일 공급자였음. 2013년 미국산 과일 수출 주요 품목은 사과(1,300만불), 배(1,200만불)였음. 2013년 가공 과일류 수출은 1,620만불로 말린 자두가 1,000만불로 대부분을 차지함.

- 가공식품 : 러시아는 2013년 미국산 조리식품 수출이 8,400만불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는 시장이었음.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금번 수입 금지 대상에 해당됨.
- 신선 채소류 : 미국산 채소류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3년 110만불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함.
- 수산물 : 러시아 시장에는 러시아산 캐비아에 대항하여 미국산 연어알 등 수산물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며, 2013년에는 대러시아 수출이 8,300만불까지 늘어났음. 러시아는 2013년 미국산 수산물 수출시장의 8번째 큰 시장이었고 총 수출의 2%를 차지하였음.

※ 내용 관련 문의: 김준걸 검역관 (202-587-6146, bluepine31@gmail.com)

#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조치와 미 정부의 대응

## 1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조치

- 중국 정부는 1990년대 “the Great Firewall” 이라는 기술을 통해 민감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해외 웹사이트를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시작했고, 1998년 “the Golden Shield”라는 시스템을 통해 중국 내의 인터넷 감시활동을 강화
- 몇 천명의 자원봉사자들 동원해 정기적으로 블로그와 채팅방, 이메일을 검열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일명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통제
- 2002년 중국 정부는 대언론 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Google의 중국 서비스를 차단했는데, 그 후 Google, Yahoo, Microsoft 등은 2000년대 초중반 중국 시장 (재)진입을 위해 중국 정부 검열에 협조하기로 결정함.
  - 특히, Yahoo의 경우, 중국 정부에 개인 정보를 전달하여 기자 한 명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음.
- 2006년 2월 Google은 중국 내 인터넷 사업 허가를 위해 중국어판 Google 주소를 google.cn으로 바꾸고 중국 정부의 검색 심사 제도 등 언론자유 제한조치와 타협함에 따라, 중국어 판 Google에서는 대만 독립, 티베트 독립, 천안문사태, 파룬궁, 민주, 자유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단어의 검색이 제한됨.
  - 또한, Google을 이용한 개인의 이메일도 중국 당국이 불온하다고 판단하면 삭제할 수 있었음.
- 2009년 3월 중국은 Youtube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이어 2009년 하반기에는 Facebook과 Twitter가 중국 정부에 의해 차단됨. 2010년 1월 중국 인권운동가들의 구글 메일에 대한 해킹이 감지되었으며, 동 조사 과정에서 Google은 중국 Google을 통한 검색 서비스를 멈추고, google.cn을 중국 정부의 검열법 통제 밖에 있는 구글의 홍콩 포털인 google.com.hk로 연계하였음. 동시에 구글은 중국에서 철수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중국 정부는 구글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갱신함.

- 중국 정부에 의하면 구글은 “중국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했으며, 이후 Google.cn 검색엔진 서비스를 다시 시작함.

## 2 미국 정부의 반응과 대책

### □ 중국, 인터넷 자유 그리고 미국의 정책

- 지난 몇 년간 미 국무부는 인터넷 사용의 자유를 글로벌 인권 의제에 포함시켜왔음.
  - 2010년 1월 힐러리 국무 장관은 인터넷 사용 자유와 관련된 주요 정책 연설에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유로운 정보 교류에 대한 위협”이 우려된다고 밝힘.
  - 2006년 “글로벌 인터넷 사용 자유 대책 위원회(GIFT)”가 생긴 이래로 GIFT는 국무부 정책과 인터넷 사용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입안해왔음. GIFT는 국무차관과 재무차관, 에너지차관, 농업차관 등 다양한 부서의 차관급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음.
    - 국무부는 인터넷 사용 자유와 관련된 인권 및 민주주의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재무부 및 에너지부 등은 기업과 관련된 인터넷 사용 자유 증진 활동을 주관
- 2000년대 초, 미국은 인터넷 사용의 자유화를 위해 이란 및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검열 대응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 과거 인터넷 자유화 운동이 미 국무부의 외교 정책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검열대응 기술, 사생활 보호, 온라인 보안 등이 미 정보통신 관련 부서들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08년부터 의회는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의 글로벌 인터넷 사용 자유화 운동에 약 9,500만불의 예산을 책정하였음. 국무부와 USAID는 중국, 이란 등 약 12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보안통신 기술 지원 프로젝트 등을 추진중에 있음.
- 또한, 미 의회는 국무부의 글로벌 인터넷 사용 자유화 프로젝트에 지급할 예산뿐 아니라 미 정부, 민간기업 및 NGO 단체들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에 있음.

## □ 미 정부의 중국 인터넷 검열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 2009년 6월 24일 오바마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명함(중국 정부는 중국내 판매되는 컴퓨터에 특정 인터넷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
  - Gary Locke 미 상무부 장관 및 Ron Kirk 무역대표는 중국 정부에 대한 서한을 통해 2009.7월부터 실시되는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에, 중국 정부는 불건전한 정보들을 차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하였는바, 미국측은 동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불건전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미 상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측 대표를 직접 면담하고 중국의 동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함.

## □ 오바마 대통령, 중국 방문시 인터넷 검열 비판

-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상해를 방문 중, 400명의 학생들 앞에서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하면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해 비판하였고, 동연설은 상해 지역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음.

## □ 미국, 중국과 인권에 대한 대화 재개

- 2010년 5월 미국과 중국은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식 회담을 가졌으며, 종교의 권리, 인터넷 자유, Google의 중국시장 재진입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함.
  - 미국 고위 관리는 중국 정부가 해당 주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긴 하였지만, 큰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

## □ 중국과 미국, 각각 인권보고서 발표

- 미국 국무부는 '201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인권실태를 비판하였으며, 동 보고서에서 "정부는 의사표현과 언론 자유를 엄격하게 통제, 특히 인터넷에 대해서는 더욱 심하게 통제하고 검열하고 있다." 라고 함.

- 이에 맞서, 중국 정부 또한 미국의 인권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대응하였으며, 중국 외교부 및 인민일보는 “변함없는 편견과 오만으로 중국의 인권상황을 함부로 말하고 있다”라고 반발함.

#### □ 미셸 오바마,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우회적으로 비판

- 2014년 3월 중국을 공식 방문한 미셸 오바마 여사는 베이징대의 스탠퍼드 센터에서 열린 공개 연설에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정보와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은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함.

#### □ 존 케리 국무장관의 인터넷 검열조치 철폐 요구

- 2014년 4월에 열린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컨퍼런스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인터넷 접속 및 온라인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은 1989년의 베를린 장벽과 같이 무너져야 한다고 함.

※ 내용 관련 문의 : 정성환 방통관 (202-939-6478, xyz3812@gmail.com)